

잡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9. NOV + DEC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경제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안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여러분이 꿈꿔오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The biggest adventure you can ever take is
to live the life of your dreams.

오프라 윈프리
Oprah Winfrey

Contents



- 004 **special report**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2019년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정기학술대회
- 012 **power interview**
남기엽 변호사
- 016 **hot issue**
- 018 **letter from**
이민주 변호사
전정우 검사
- 024 **real story**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허원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박진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엄선영
- 031 **statistics**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 032 **contest**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 038 **happy lawschool**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금성 학생
- 041 **book**
- 042 **opinion**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애라 교수
- 048 **health mentoring**
- 050 **movie talk talk**
- 054 **culture**
- 056 **akls news**
- 058 **out campus**
- 059 **quiz**

2019. nov + dec

발행일 2019년 1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1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

10월 19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에서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을 기념해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1주제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주제발표: 김주영 교수(서울대 법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 리걸클리닉의 확대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를 초래하는 요인들(수요측면의 변화, 전문가 교육에 있어서 경험적 교육의 효과 등)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리걸클리닉의 확대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에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이 과거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에서 6개월의 수습 또는 변호사협회 주관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실무교육의 충실도가 떨어지므로 로스쿨 과정에서의 Experiential Education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미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 제도적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면서 리걸클리닉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들(과도한 부담을 주는 변시제도)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오현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로스쿨 교육과정 중 '실무연습' 등의 이름이 붙은 과목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 기록형/사례형 대비 과목이다.
- 리걸클리닉 발전을 포함한 로스쿨 교육 발전의 전제조건 - '경쟁'이 '교육'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 리걸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특히 현재와 같은 과도한 경쟁 압력 하에서 정해진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시험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송지우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리걸클리닉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해야 할 계기가 필요하다.
- 리걸클리닉에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학생의 발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시혜성에 대한 자기경계, 로스쿨생으로서의 특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위험성도 생각해봐야 하며, 클리닉 교원의 고용이나 초빙 형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2주제 국내 리걸클리닉 운영사례

사례발표: 강수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CLEC(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의 경우 소장, 클리닉지도교수, 조정위원 등과 학생회장단, 클리닉 팀장단으로 이원적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 2018년 1년간 일반법률상담 클리닉 71명, 조정클리닉 35명, 국제인권클리닉 31명이 참여하였고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이 리걸클리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리걸클리닉 전담 교수제) 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리걸클리닉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재원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 최소 1학기 정도는 실무 교육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변호사시험 제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례발표: 김권일 박사(충남대학교 법률센터)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습을 위해 운영중이다.
- (대면 상담 능력 향상에 기여) 찾아오는 법률상담이 온라인 실습으로 실제 면담 실습이 제한되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현직 변호사 강평을 통한 실무적 접근 방법 실습) 판례와 이론을 통한 법리적인 해결방법을 비롯하여 실무적인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온라인 실습으로 참여율 제고) 변호사시험 준비로 인한 비교과활동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실습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단, 의뢰인 실제 면담 실습 등에 있어서 한계도 있다.

사례발표: 이해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균관대는 조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제휴하여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 실제 소송진행 중인 살아있는 사건의 기록을 읽고 관련 법리 및 조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합의조항 정리를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송 및 ADR과 관련된 실무감각을 익힐 수 있다.
- 조원들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토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력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케이스라운드를 통해, 다른 조의 사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

3주제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한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

주제발표: 박선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리걸클리닉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교육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할 수 있는 살아 꿈틀대는 교육의 현장이다. 각 대학의 상황, 책임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의 교육방침, 학생들의 수요 등에 따라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진정 '살아있는 리걸클리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리걸클리닉에서의 형사국선변호를 실시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로스쿨 학생 형사변호실무규칙과 같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형사국선변호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조윤리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변호사가 더욱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센터장):

-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 교육의 형해화를 해소하고, 각 로스쿨 간 리걸클리닉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로스쿨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좌측부터 김주영 교수, 이영무 교수(좌장), 송지우 교수, 오현정 변호사)

- 리걸클리닉의 연합체인 리걸클리닉협회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 우리도 교내·교외 리걸클리닉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때에 학생들의 참여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풀타임 전담인력이 임상교수, 임상강사로 참여하여야 하고, 리걸클리닉협회의 차원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 로스쿨 실무교원의 공익사건대리를 위한 변호사 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적 근거가 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도 영리적인 업무가 아닌 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 파장을 고려하면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혹은 변협,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3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22년 법전원 제3주기 평가를 앞두고 준비되고 있는 평가기준의 리걸클리닉 항목은 제2주기 평가기준의 리걸클리닉의 개설 및 운영의 내실화 항목과 리걸클리닉 지원 항목을 통합하고, (1)리걸클리닉의 개설, (2)적절한 내용 구성, (3)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4)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5)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6)리걸클리닉의 인적구성 및 운영조직, (7)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8)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을 평가요소로 하고 있다.
-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한국리걸클리닉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의 범주를 넓혀야 하며, 특히 법전원 규모의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과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고려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김대희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걸클리닉 과목의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학교가 공유하고, 필수실무과목들의 현황도 파악하여 학교별로 커리큘럼을 어느정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실무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번시가 유지된다면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는 실무교육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무교수들이 먼저 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번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번시 난이도 조정, 선택형 과목 시험 범위 조정, 표준 판례 선정, 기록형 시험 개선 등)

2

2019년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정기학술대회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지난 9월 말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 교수)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연덕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법(헌법)의 교육과 평가

발표1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헌법 과목은 변호사시험의 주요 과목으로, 학생들은 1학년부터 변호사시험 대비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다.
- 헌법 강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원의 강의로 편성해야, 사례(판례) 연구, 답안 작성 훈련, 피드백이 가능하다.
- 민사, 형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의 경우와는 달리 공법분야에 관하여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강의 지원이 없으며, 있어도 헌법재판연구원의 단기 인턴 정도에 불과하다.
- 현행 변호사시험은 헌법과 행정법을 ‘공법’과목으로 강제로 통합해왔는데, 헌법의 포괄성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법 사안에 국한되는 문제만 출제되고 있다. 형사 사안 등의 다양한 문제상황에서의 헌법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분리해야 한다.

발표2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행정법은 공익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권력적, 비권력적 수단들을 사용하는 공적 주체의 작용을 법으로 근거지우고 규율하여 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법률가 일반의 공익적 의식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유지한다면 행정법학의 교육은 집단적 문제해결의 주체로서의 시야를 길러 이에 기여할 수 있다.
- 하지만 법전원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행정법의 비중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간의 압박으로 단원간 연관성, 원칙적 도그마틱에 대한 다양한 예외, 개별 판례에 사용된 카주이스틱 등의 이해를 도울 풍부한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행정법 이론이 뿌리를 두거나 영향을 받은 외국법들과 이후 자체적인 발전과정에서 정립된 이론들을 조화롭고 논리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형사법의 교육과 평가

발표1 박정난 조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선택형 시험은 누가 더 많이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대회가 아니라 기본적 판례와 다양한 법이론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어야 한다.
- 사례형 시험은 기록형 시험과 차별화하고 논술형 시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일반 서술형 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록형 시험은 선택형 및 사례형 시험에 의하여도 출제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보다는 사실관계의 다름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쟁점이 주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보다 넓은 안목과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이론과 실무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2 전지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법 과목을 형법Ⅰ, 형법Ⅱ로 분류하는 것은 1학년 학생들을 강제분반시킴으로써 학급별 수강인원의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형법Ⅰ과 형법Ⅱ의 학습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 형사법 교육은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실무, 형사특별법, 기타 형사법 심화과목(전문과목) 등 단기간에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 통상적 사건(routine-case)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법리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로스쿨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사건(non-routine-case)을 위한 법조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 새로운 입법방향을 제안하거나, 판례의 변화를 주도하고, 외국의 법제나 판례에 대해 이해하며, 인접 학문 분야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



학술대회 참석자 및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민사법의 교육과 평가

발표1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의문은 로스쿨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이나 제도와 관련 있는 판례들이 다루어질 때 최소한의 법학이론 교육조차 수반되지 않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현주소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판례를 다룰 때 (1)법원의 결론과 거기 이르는 법원 나름의 인식과 논증을 알려진 이론적 배경 아래 기술(記述)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판례에서는 (2)앞선 판례들과의 상관성과 차별성은 물론 우리 사법질서와의 체계정합성 아래 법원의 결정과 논증을 비판적 이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시에 합격하려면 시험 6개월 전까지 생산되어 누적된 모든 판례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부당한 요구가 변시 기출문제를 통해 누적하여 암묵적으로 시사된다면 (1)에서 말한 설명으로 충분한 이론교육조차 시간제약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실해질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 위험의 현실화에 따른 우려가 '변호사시험의 변화'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표2 김명숙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래 법과대학에서의 민법 교육은 민법 조문 순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의 순서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와 같은 민법 과목 구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른 법학 분야와 단절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법률의 실천적 적용 능력의 함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기에 민법 교육의 분량의 과다, 일방적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민법 교육과정에 따르면 2학년 2학기에 필수과목으로 민법연습과 민법기록연습 I 을 이수하고, 3학년 1학기에 실무과목인 민사재판실무를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음에도 학생들이 상당수가 민사재판실무를 이수한 후에 민법연습과 민법기록연습 I 을 이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본교과 이수 후에 심화교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3 윤남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영미법 국가에서는 민사법 교재 자체가 판례인 경우가 많지만 civil law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론과 판례 사이에 거리가 있는 만큼 법이론을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 우리나라 민사실무교육이 법이론을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훈련을 쌓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이상 실무교수들은 이론 교수 못지 않게 이론에 밝아야 할 것이다. 실무교수가 이론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발표4 최영호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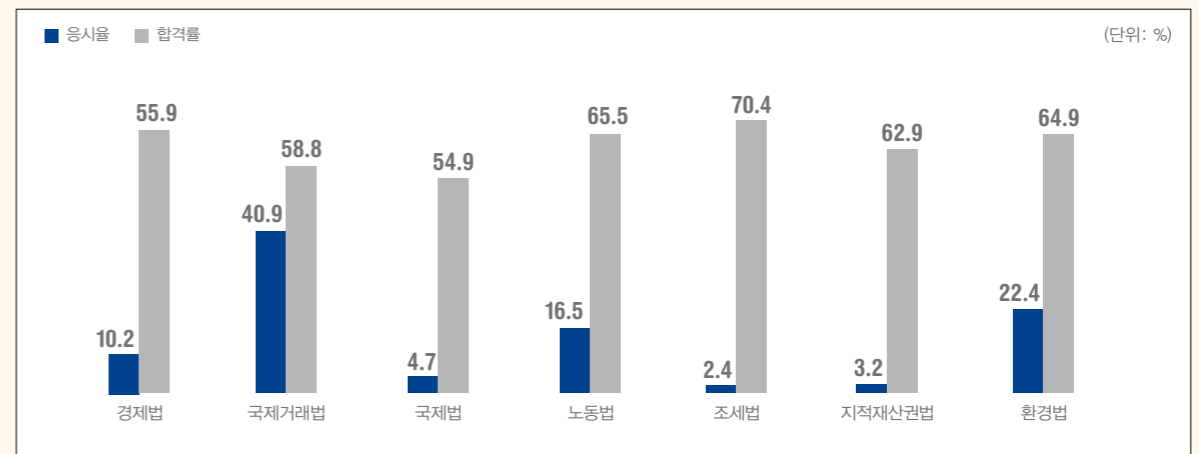
- 상법은 상행위, 회사법, 보험해상, 항공운송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다. 상법을 교육할 때에는 헌법, 민법, 지식재산권법, 각종 규제법과 기업의 삶의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파편적이고 국소적인 지식 교육을 벗어난 종합적 인식 및 사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이 낳은 상법의 왜소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교수들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로스쿨에서의 공법교육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중철 교수(좌장), 김하열 교수, 이희정 교수, 조소영 교수, 김남철 교수)

선택과목의 교육과 평가

발표1 박덕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경우 ①특정과목 풀림 현상, ②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 ③과목별 수험 부담과 준비의 분량 편차, ④선택과목 응시비율과 로스쿨에서 수강비율의 무관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 실제로 선택과목이 '쉬어가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택과목의 교양과목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실한 '학점이수제' 도입과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로스쿨 1학년 때부터 선택과목 수강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형 시험을 폐지하는 등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2019년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정기학술대회'자료집 발표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클래식 연주회는 전공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이 장막은 자비출판(문학), 크리에이터(방송) 등이 대세가 되는 가운데에도 굳건했다. 그런 장막을 걷고 바쁜 변호사 생활에도 정기적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 이가 있다. 콩쿨 수상이 변호사시험 합격보다 더 기뻐했다는 남기업 변호사를 찾아갔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

남기업 변호사

쫓든 같은 멜로디를 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 연주에 빠져들었다.

학부 때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학교 교수님께 레슨을 받았었는데, 교수님께서 '예술 중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늦기는 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해주셨다. 그때까지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교습을 받게 전부였던 탓에 아무래도 예술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는 기교면에서 차이가 있었을 텐데, 부모님께서 '늦었다'는 말에 방점을 찍고 반대하셨다.

결국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와 피아노를 병행했다. 당시 한 달 용돈이 30만원이었는데, 주말 레슨을 받으려고 무려 28만원이나 투자했다. 하지만 그렇게 주말에만 피아노를 치다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클래식은 대중예술과 다르게 주류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고민 끝에 일단 공부에 전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로스쿨 재학 중에도 피아노 연주를 계속 했나?

운이 좋게도 로스쿨 바로 앞 건물에 음대 건물이 있었다. 로스쿨 수강 신청이 끝나면 음대 수강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목 교수님께 청강하고 싶다는 뜻을 담은 메

일을 보냈다. 교수님들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로스쿨 재학 중에도 음대 수업을 들었고, 전공생들이 연주할 때마다 '비전공생'의 입장에서 '좋은 점'만 피드백 했다. 또 아는 동생을 통해서 음대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꾸준히 연주할 수 있었다. 치열한 로스쿨에선 통용되지 않는 문법으로 들릴 수 있는데 친구들끼리 커피 한 잔 해도 1시간 금방 간다. 그 시간이 음악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로스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법학은 재미있었지만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의사가 있듯 법률이 있고 법률가가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다. 기자정신이라 할까(웃음). 교환학생 갔다온 이들을 수소문해보니 로스쿨에서 그런 걸 갈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프로그램도 없었고.

일단, 도전하기로 하고 가고 싶은 나라를 정했다. 미국은 학부 때 가보았기에 우리가 따르는 법체계인 독일의 주요 법전원 리스트를 뽑았고 적성을 고려해 10여개 학교를 추려 이력서와 어학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보냈다. 이 중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 등에서 답신이 왔고 인터뷰를 거쳐 칼 맑스와 막스 플랑크 등의 동문을 배출한 훔볼트 대학교에 가기로 정했다. 사후에 학사지도 교수님에게 말씀드려 장학금과 학점인정도 받았다.

2학년 2학기는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에 돌입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한 학기 동안 해외대 교환학생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것은?

우선 주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해외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아름다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통해 환경법의 중요성을 배웠고 런던 웨스트엔드의 유사 뮤지컬을 통해 지재법의 세계화를 절감했다. 또 개인적으로 유흥문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베를린의 혼잡 속 절제된 클럽 문화를 통해 엄정한 형사법 집행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법에 대한 태도 역시 흥미로웠다. 특히 독일 학생들의 법학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변호사의 일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생활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독주회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Grandes études de Paganini, S.141>를 연주하는 남기엽 변호사.

우리나라 학생들 못지않게 도서관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커피 마시러 나가자고 하면 항상 따라 나오고(웃음). 의지를 다 잡는 계기가 됐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간간이 영어로 된 법률 서면을 번역하거나 영어로 미팅을 할 기회가 있는데, 교환학생 기간 동안 익힌 영문 법률용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얻은 게 더 많다고 본다. 영어와 법률영어는 내 입장에선 매우 달랐다.

언론사 기자로도 활동했을 만큼 ‘글쓰기’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어 보인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꾸준히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출판 제안도 받았는데, 글을 쓰는 일련의 작업들이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주기도 하나?

생각이 스쳐지나갈 때 일기를 쓰듯 기록해두는 편인데 이렇게 모인 조각조각의 글들이 어느 순간 합쳐지면서 제법 괜찮은 글이 된다. 모아둔 글을 신문이나 잡지에 보내서 게재가 되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어도 괜찮다.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갖다보니 게재 요청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출판 제안까지 받은 것이지, 딱히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각해보면 문학이랑 클래식은 꽤 밀접하다. 문학은 통사적이며 한동안 문화예술의 리딩히터였다.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 <피가로의 결혼>, 베르디의 <오텔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작곡가들에 의해서 음악으로 탄생했다. 애초에 가곡과 오페라는 문학에 음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클래식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가령 리스트의 작품 중에 <단테 소나타(Après une lecture du Dante)>가 있는데 제목부터가 ‘신곡을 읽고’이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을 읽지 않고서는 곡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그리고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음악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루에 피아노 연습은 어느 정도 하나?

매일 2-3시간씩 로펌 근처에 피아노 스튜디오를 빌려서 연습하고 있다. 일찍 퇴근하는 날은 곧장 가서 연습하고, 야근이 있는 날에도 연습을 거르지 않는다. 피아노에 앉아 손을 풀고, 부분연습을 몇 바퀴 돌리고 녹음하고 복기하면 2시간이 금방 간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레슨도 받고 있다.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아노와 법률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음, 우선 피아노 연습과 법률 공부의 공통점부터 말하자면 ‘누구나 많이 했기를 바라지만 많이 하기는 싫은 것’ 아닐까.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해야 할 게 더 많이 보이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 그렇게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객관화의 임계점이란 게 있다. 이쯤 되면 꽤 잘했어야 했을 자신이 아니라 여전히 열타며 헤매는 자신을 텅텅하게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럼에도 유지되는 자신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게 필요한 것 같다. 두 분야 모두 다.

콩쿨 수상경력이 있다고 들었다.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나.

사람은 타인의 노력을 쉽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내가 보

기에 예중, 예고, 음대 등을 나와 지금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경외의 대상으로 보인다. 한 곡 한 곡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을지 미력하나마 느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대한 벽으로 상정됐던 저들과 경쟁하는 콩쿨은 내겐 언제나 즐겁고도 힘든 시간들이었다. 대학시절 나름 열심히 연습하여 콩쿨에 나가 몇 차례 수상하긴 했지만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 생각한다.

콩쿨에 다시 도전할 생각인가?

내년에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콩쿨에 참가할 예정이다. 프리스크리닝을 위해 비디오로 먼저 연주를 보내 통과해야만 본선무대에 오를 수 있다. 예선 통과 후 2번의 독주와 협연까지 있기에 녹록한 과정은 아닌데다 우승자의 연주는 웬만한 프로연주자 이상이지만 부담되지는 않는다. 어려운 것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답은 그냥 하는 거다. 수상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기객관화가 덜 된 행위다.

학업에 지친 로스쿨 후배들에게 법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관심 있는 분야를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준다면?

사실 포기하지 말라는 사람들 말은 걸려야 된다고 본다. 인생은 포기로 이루어져 있다. 포기해야, 또 채운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아이템 슬롯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무얼 손에 넣기 전에 포기할 것부터 정해야 한다. 합격을 위해 노는 걸, 집을 사기 위해 여행을 포기한다. 포기하는 연습 없이 넣는 것만 연습하는 건 ‘놈팽’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부와 병행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웃음). 이걸 확실히 가치관의 문제인데, ‘꿈’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총합이라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 중에 변호사의 일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생활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인권, 노동자, 평등 따위의 로스쿨 자소서 동기 말고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변호사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변호사로서 일하며 한 가지 마음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의뢰인의 인생 마지막 보루 옆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 언제나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나도 사람이고, 의뢰인도 참 다양해서 때론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회사도 있다. 그 때마다 이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한다. 회사가 싫어도, 의뢰인이 싫어도, 그래도 그들은 나를 믿고 옆에서 떨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 이 마음만은 지키고 싶다.

향후 계획은?

몇 달 안에 서초동에 있는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할 계획이다. 그 후에는 차 또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도 하고 편안하게 연주를 듣는 ‘슈베르티아데’ 컨셉으로, 주로 지인들을 초청해서 할 생각이다. 슈베르티아데는 ‘슈베르트의 밤’이란 뜻인데 법률가들이 주로 후원했다. 곡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스카르보)>, <물의 유희>, 라흐마니노프 에튀드 <39-1>, 리스트의 <타란텔라>, 부조니의 <라 캄파넬라>, 쇼팽 에튀드 <op.10-1,2,4,5>,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2번, 7번, 베토벤소나타 <월광>, <열정>, <템페스트>, 그리고 내가 편곡한 DJ okawari의 <Flower Dance>,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중 <피아노배틀>과 직접 작곡한 프렐류드를 연주할 계획이다. 차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이 목표다.

남기엽 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번호인
- 現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번호인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現 동일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現 시사저널 칼럼니스트
- kyn.attorney@gmail.com

issue 0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북' 지역 추가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북지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 외에 전북 지역 고사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등 나머지 지역으로도 시험장 확대가 이뤄지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9-10-18



issue 03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로스쿨에서 특강 가져

9월 16일(월) 전남대학교 로스쿨 1호관 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과거의 법은 권리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사회, 경제법 등 권리부여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고 법원의 역할도 분쟁의 소극적 해결에서 사회후견과 더불어 치유의 기능까지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한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법관의 부족, 인공지능의 도입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앞으로 법원과 법률가들이 맞게 될 도전은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issue 04

중앙대 로스쿨 재학생,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건영 학생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김 씨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로스쿨 간의 복수학위프로그램에 선발돼 2018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인디애나 로스쿨에서 LL.M(Master of Laws,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지난 7월 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제10회 모의 국제상사 중재 경연대회 개최 안내

개최일	2020년 2월 22일(토)
대회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마감	2019년 12월 24일(화)
등록방법	이메일 / seoulpremoot@snu.ac.kr
서면기한	2020년 1월 24일(금)
대회규칙	Willem C. Vis Moo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ition과 동일한 문제, 동일한 규칙으로 운영

issue 02



2019년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팀 우승

지난 9월 27일(금)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본 대회를 개최해 왔다. 국내 대학(원)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하여 최종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학교 연합팀인 '에이셉'팀이, 우수상은 중앙대학교 '아이에스아이피'팀이, 특별상은 고려대학교 '솔로몬K'팀이 수상했다.

여행, 이주 그리고 3년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민주 변호사

‘글 쓰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현실적 몽상가’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적어놓은 자기소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여행을 말하고, 여행을 들으려고 했다. 삶도 여행처럼 살아야지, 어디 목적지가 있겠나 하는 것이 내 삶의 신조였고(Lif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그렇게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럼에도 내게 유독 손에 들어오지 않는 책이 있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독서모임에서 그 책을 함께 읽기로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다. 누군가 여행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그다지 와 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도 영 별로일 것 같다는 알량하고 세속적인 마음에 읽을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좋은 명분이 생겼다.

그렇게 그 책을 읽고도 떠오르는 이야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딱 하나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다. “이주와 여행의 관계는 마치 현실과 소설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는 플롯이 없고, 무심하며, 무의식적이다. 하지만 소설 속 이야기에는 어지러운 잡음이 없고, 삶에는 언제나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기승전결에 와우 포인트까지 모두 담겨 있다. 전자는 떠밀리는 것이라면, 후자는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한다. 내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주나 현실은 이내 살아내는 것이고, 여행이나 소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나 할까.

삶이 여행과 같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은 이주와 같기도 할 것이다. 글쎄, 나에게 있어 쉽게 떠오르는 ‘떠밀림’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 삶도 그랬으니까 말이다. 끌어당기는 듯했으나 실상 떠밀려온 일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랬다.

내가 떠밀렸던 이야기

내게 가장 큰 ‘이주’의 기억이 로스쿨 진학이었다. 내가 로스쿨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은 모 언론사 겨울 인턴으로 소위 ‘사츠 마와리(察廻)’를 돌 때였다. 내 기억이 있는 어린 시절부터 그 순간까지, 방송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본 적이 없었다. 그때도 정말 한 발자국만 넘어서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사츠 마와리’라는 것은 ‘라인’을 정해 놓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경찰서를 도는 일이다. 아침 6~7시에 보고를 시작하고, 오전 1~2시까지 2시간 단위로 보고를 마치는데,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그 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을 돌고 나왔어야 했다. 인턴이라고 앞 뒤 한 타임씩은 줄여 주었는데, 그래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유독 ‘사츠 마와리’를 돌았던 2015년 겨울은 꽤 추웠다. 사츠 마와리가 고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부모님 나이 정도 되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이런 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는 아직 잊히지도 않는다. “아이템 안 물어볼 테니, 몸만 녹이고 가겠습니

다”하고 들어가면, 따뜻한 믹스 커피 휘휘 저어 주시며, “꼭 좋은 기자가 되세요” 말씀해 주시던 순찰팀장님의 미소가 아직도 떠오른다. 그 약속을 못 지켰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지금도 꽤 큰 짐이다.

사실 내 꿈을 접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회색 빛으로 물들어가는 내 가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현장을 담아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술자로서의 나는 그야말로 최고였다고 자부하지만, 그런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가 지독히도 어려웠다. 만나는 사람들의 자리가 다 내 자리인듯,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치 내 논리인듯 착각에 빠져가는 내가 싫었다.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때로는 누군가의 인격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감정을 감추고 그 누군가의 내밀하고 깊은 영역까지 파고들어가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순간 두려워졌다. 송곳 같은 질문으로 인정은 받겠지만,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을까 무서웠다. 시청자와 세상을 향한 가치 있는 물음을 던지지도 못 하는데 이 일을 계속해서 무엇하는가 회의도 들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명목은 미국 HBO 인기 드라마 ‘뉴스룸’의 주인공 월 맥커보이가 연방 검사였고, ‘방송 뉴스를 안방의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명대사를 나도 구현해보고 싶다는 구실이였다. 당시에는 스스로 합리화하기에는 참기가 막힌 명분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떠밀려 로스쿨에 왔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로스쿨 생활 3년이 불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름답게 채색되지도 않는 것 같다. 다시 돌아가기는 싫으니까 말이다. 내게 로스쿨 3년은 그간의 나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무엇인가를 채워넣을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아무리 로스쿨 3년을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림자조차 사그라져버린 또 다른 나의 모습에는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색은 빛을 바랬고, 소중한 기억들, 쌓아 올린 성취들,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잃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실과 소설, 이주와 여행, 그 사이의 차이는 그것이 ‘나

의’ 것인지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소설 속의 이별은 정해져 있는 여정이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희생일 뿐이다. 죽어야 다시 사는 카타르시스의 세상이 빛나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산 바게트 빵 하나로 세끼를 해결하는 유럽 배낭여행이 즐거운 것은 그것이 여행이기 때문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마냥 떠밀려 이내 살아내야 하면,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의 상실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나를 끊임없이 밀어내는 3년의 시간이 꽤 시리게 느껴진 이유는 그 길이 여행자의 길이 아니라, 이주자의 길이였기 때문이었다. 가지 않은 길에 남겨둔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던 것도, 떠나는 이들의 뒷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던 이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지 않았기에 그랬던 것이다.

떠밀리거나, 이내 살아내는 이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로스쿨에 들어오려는 것으로 안다. 때로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그 분야에서 당연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인권과 정의의 편에 서고 싶어서, 지독한 삶의 노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든 좋다, 적어도 4년 전 나와 같지만 앓다면 말이다. 이 맘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로스쿨 면접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적어도 떠밀리지만 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걸어가야 할 3년은 두려움을 피해 몸을 숨겨줄 만큼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다. 이 바닥에서 여행자가 되지 못하면, 잃어야 할 많은 것들에 아쉬움 담긴 한숨만을 쉬면서 마냥 지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한 가지 더. 하지만 이미 비행기표를 끊고 이곳으로 떠나기로 했다면, 완전히 ‘나의’ 여행으로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결국 떠밀리는 것도, 끌어당기는 것도 자기 자신이니깐.

이민주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 (2016 ~ 2019)
前 연세춘추 편집국장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검사가 되기까지



법무연수원

전정우 검사

서

어느덧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N시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상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을 사람들에게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온실 속 화초의 알미운 흐느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룬 목표의 암울했던 이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패한 고시생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사법시험에 조기 합격하지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대한 요령이 전혀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판례보다는 수업시간에 주로 다루는 학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판례를 지워버린 채 학설만 보는 어처구니없는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낭비한 후에서야 기출문제와 판례 위주로 시험이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험공부를 시작한 지 3년가량이 지나서야 겨우 사법시험 1차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차 시험이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인 1차 시험에 맞추어 결론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사례형인 2차 시험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초시(처음 치르는 2차 시험)에서 전 과목 과락이 나왔습니다. 그 후 제 능

력에 한계를 느끼고 면과락 할 정도로만 공부하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과목 과락을 면하게 되긴 하였지만 결국 총점 부족으로 재시(두 번째 치르게 된 2차 시험)에 낙방하고 다시 1차 시험을 치른 뒤 응시한 삼시에서도 불합격한 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편했던 군 생활

삼시에 불합격한 후 네 번째 2차 사법시험을 앞두고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년도에 재시에 불합격한 후 군대나 가자는 생각으로 지원했던 카투사에 선발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사법시험 합격정원이 급격히 줄고 있었고, 아버지의 정년퇴직, 동생의 임용고시 준비 등으로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2012년 11월 26일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환갑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2차 시험의 기회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들 용투사라고 부르는 용산에서 근무하였지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사령부에 배치받아 많은 업무량과 잦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해 개인 시간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 확보를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 전에 공부했고, 외출, 외박, 휴가 기간에도 부대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학교 고시반에서와 달리 그곳에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심리

적 압박 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도중에 합격자 발표가 났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불합격을 하여 실망감이 가득한 상태로 다시 훈련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해도 안 된다는 절망 속의 백수 시절

제대하자마자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지원하였습니다. 그렇다 할 스펙도 없고 나이도 적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기업은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몇 주 간격으로 법원행시, 입법고시,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국정원, 경찰간부, 해경간부 등 법학으로 시험보는 곳이면 어디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늘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취직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시험 본 곳이 예탁결제원이라는 금융공기업이었는데, 우려와 달리 손

쉽게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금방 백수 생활을 탈피할 수 있겠다는 희망 속에 온 가족이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탈락했고, 계속하여 이곳저곳에서 필기합격과 면접탈락을 반복하며 2년가량이 희망 고문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마치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잠깐잠깐 몸이 좋아져 온 가족이 치유될 것이라 기대하며 기뻐하였는데, 다음날 더 상황이 악화되어 절망해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최후 보루로 지원했던 로스쿨에 합격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법조인의 꿈을 향한 3년간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입학한 로스쿨

오랜 기간의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전공지식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었고, 다른 친구들보다 여유롭게 공부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





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좋아하던 게임도 끊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던 검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면접을 네 차례나 본다는 말에 면접콤플렉스가 있는 저로서는 선불리 검찰에 올인할 수 없었고 재판연구원과 병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취업준비 시절 이것 저것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려 마지막에는 검찰에만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였지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선배님이나 출강 교수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자료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검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

돌고 돌아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시험에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1차 사법시험에 세 번, 2차 사법시험에 네 번, 각종 고시 등에 불합격 할 때마다 실패에 대한 감정이 무더지기보다는 더욱더 두렵고 힘들었으며 결단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실패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실 분들에게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며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인생은 점이 아닌 선'이라는 여자친구의 이모부 이야기와 함께 시험에 낙방할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중2병 같은 글을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굵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 맹자(孟子) -

전정우 검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검사(법무연수원)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사법연수원 실무실습을 마치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허원태

“내년에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실무실습 기본과정의 마지막 시간에 담당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매일 마주치고 인사하던 분들과도 다음을 기약하는 시간이지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은 일찍 마쳐주는 배려는 아쉬움과 함께 작은 즐거움으로 남았습니다.

처음 사법연수원으로 간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5분만 걸어가면 호수공원’, ‘연수원 바로 옆에 맛집이 잔뜩!’, ‘구내식당보다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세요.’, ‘강의는 편하게, 생활은 즐겁게’ 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었지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사법연수원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어렵고 무거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일 겁니다. 저도 로스쿨에 뜻을 두기 전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사법시험은 저에게 너무나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고, 법조인들은 일상에서 굳이 만날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법연수원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주신 분들은 숙소 관리인 분들이셨습니다. 2주간 지낼 기숙사에 등록하고 방 배정을 받습니다. 2인 1실입니다만, 간혹 혼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물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에어컨을 제외하면, 상당히 쾌적하고 편안한 숙소입니다.

강의는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십니다. 로스쿨 각 학교의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2학년 여름은 아직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오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에 함께 참여하시는 친구들과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는 민사법과 형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사법은 민사절차론을 시작으로 요건사실론, 민사집행, 보전,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정지

상권을 중심으로 한 민사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와 민사기록작성이 있습니다. ▲민사사례연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정지상권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사례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법정지상권 사례 10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17개 정도로 구성되어있는데,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충실한 사례해설, 자세한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해당 주제를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최신판례는 사법연수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판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실무와 겹치지 않는 판례를 중심으로 선별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학교 수업에도 훌륭한 보충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논점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차후에 접한 시험은 물론 이론적인 공부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법은 형사절차론을 시작으로 증거법,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례연구, 형사최신판례와 형사기록작성이 있습니다. ▲형사최신판례의 경우 이번 학기의 형사재판실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깊은 이해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훌륭한 예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산범죄를 망라하는 형사사례연구는 학생으로서 접할 수 있는 기본적 유형의 재산범죄 사례를 거의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적용 법조 및 판례의 결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법리와 판례를 익히고 본 사례문제들을 접해보면, 보다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는 민사기록작성과 형사기록작성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기록이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의 내용과 검토보고서 결과 자체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아직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를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기록과 검토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2학기 초에 본 기록을 가지고 여럿이 모여 형사재판실무 수업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록의 세계에 입문하기 전에, 미리 그 난해함(?)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이미 배우고 온 과목들도 있고 아직 배우지 못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도 있고, 선택으로 남아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여타 요인에 따른 학생 간의 수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강의 난이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법연수원 기본과정을 실무실습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사

법연수원 강의는 매우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법(法)이라는 세상의 물 한방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만, 무지함을 넘어 얻은 것이 많기에 우리 학우 여러분께 사법연수원 실무실습 과정을 이수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경험에 따른 바람도 전해드립니다. 호수공원에서는 자전거도 타보세요. 호수공원 옆 노래하는 분수대는 시간 맞춰 가보세요. 말라가던 감수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각종 맛집은 예상보다 조금 더(?) 가야 많습니다. 구내식당 나름 맛있습니. 강의는 집중해서, 생활은 밀도있게! 저녁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도 가능합니다. 숙소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치킨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법연수원의 앞날에 대해서 안팎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수십 년동안 쌓여온 사법연수원의 역사에서 작은 과실을 얻고 싶은 욕심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단히 쌓여온 사법연수원의 이름이 앞으로도 창연히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언제나처럼 우거진 나무들의 푸른 향 가득한 여름에 다시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과정의 첫 시간에 담당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법연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스쿨의 오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박진우

나의 이야기

제가 속해있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장 임기는 1년입니다. 임기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한 문제들이 저의 1학년 1학기 로스쿨 생활을 덮쳤고 여러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학년 2학기부터 학생부회장을, 2학년 1학기부터는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로스쿨 생활의 대부분을 학생회 일을 하면서 보냈고 이제는 길었던 3학기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임기를 끝마치고 싶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회장 일을 수월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지만, 변화를 자신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단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영어학을 전공하여 영미법과 UN협약사례, 국제법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단 1학점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의사, 약사, 기자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로스쿨에 들어와도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공부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 높아진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을 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가 결국에 시험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사법고시의 폐단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은 3년 동안 학교에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원우들의 이야기

저희 원우들은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생활하여 의지할 곳이 같이 공부하는 주변 동료들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동아리들은 구성원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점점 옛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 초창기 때 대규모였던 등산동아리가 해산되었고, 교지와 교내신문은 발간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우들은 기수가 내려갈수록 동아리보다는 스테디를 구성하

고 있고, 학기 초 동아리 설명회에서도 앞 다퉈 공부에 방해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고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상법 사례집은 어떤 책이 좋은지, 형사 기록형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얘기들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스쿨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야 성공한다고. 앞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면 성공하고 뒤처지는 자들은 낙오되는, 그리고 그 낙오된 자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법고시 제도였습니다. 주변도 둘러보고 다양한 길로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로스쿨이 불과 몇 년만에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학교의 이야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이 각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입시부터 강의, 시험까지 모두 변호사시험과의 관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고, 커리큘럼도 변호사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번시 적합도가 높은 수업들 위주로 찾아다니고,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계없이 선택법은 수험에 편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위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변호사시험에만 맞춰져 있고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등록금을 지불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학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 총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번시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은 저에게 건의사항들을 개선해주면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만드는 로스쿨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이 다소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원우들은 전문적이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것 이전에 일단 법조인 그 자체부터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많은 것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대로 다양성을 갖고 전문적이며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누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경쟁에서 낙오되면 끝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그런 법조인은 변호사시험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일단 법조인만이라도 되고 싶다는 말은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제도의 이야기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있습니다. 1회 변호사시험 때 1,665명이었던 응시자는 8회 변호사시험 때 정확히 2배 증가한 3,330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1,500명씩만 뽑다보니 응시자만 늘어 합격률은 2회 변호사시험 기준 75%, 3회 변호사시험 기준 67%가 되었고 이제는 1,700명 가까이 뽑아도 겨우 50%를 살짝 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로스쿨은 분명 도입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해마다 적어도 200명씩만이라도 더 뽑았더라면 응시자 수는 확연히 줄어들어 매년 75%이상의 자격시험화가 될 수 있었고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00명씩만 고집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온전히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생들은 올해 2월 변호사시험 합격률 개선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외치며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외치다가도 저녁에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변화를 바라도 저희들은 정상화할 힘이 없고 법무부에서 정한 합격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법무부에서 저희 목소리를 듣고 응대해주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속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개선되어 로스쿨의 취지대로 다양한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법학사의 로스쿨 한 학기 생존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엄선영

안녕하세요. 20살에는 철학을 전공으로, 22살에는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던,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배우며 법조인의 길을 꿈꾸고 있는 26살 엄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봐도 비법학사입니다. 로스쿨 도입 후 저처럼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은 초학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훌륭하게 비법학사로서 로스쿨에서 살아남고 있는 원우분들이 많아 제가 감히 이런 글을 써도 되는 것인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새로 입학 앞둔 친한 예비 12기 후배에게 지난 약 6-7개월간의 경험을 전해주는 느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마음가짐의 측면, 생활상 측면, 그리고 활용중인 공부법 이렇게 세 가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기

우선, 마음가짐의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멘탈관리가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긍정적 효과를 주는데 ①훌륭한 멘토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②나의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수험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저의 현실은 이른바 “쌍 비법”이었고, 주변에는 법을 전공했고, 심지어는 수험생활도 몇년씩 해본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생각하니, 그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시간을 앞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산전수전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셨기에 간단한 공부법은 물론이고 복잡한 판례의 논리까지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손뻘으면 닿을 거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높은 벽같던 동기들은 좋은 인생선생님들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비교가 되지 않을 분들과 나를 비교하며 힘들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자”, “내가 오늘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자”라는 생각으로, 제 페이스에 맞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법서를 읽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꽤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요약집을 외우는데 급급했다면 매일매일이 악몽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 판례의 요지에 숨어있는 결단의 배경들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공부하니 이해도 더 잘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 각각의 낱장의 지식들같은 것이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갈길이 멀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곳에서 ‘살기 위해’ 고안해낸 방어 기제 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슬럼프 없이, 오히려 즐기면서, 그리고 생각보다는 성공적으로 첫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말기

두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

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로스쿨에 들어 오겠다고 결심할 때 부터 합격할 때 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참석했던 로스쿨 설명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에 결심할 수 있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모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첨삭, 연습방법론 등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원대 로스쿨에 연고가 없어 걱정을 했었지만, 여기에 와서도 좋은 선배님들, 교수님들을 만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라는 교



수님들의 말씀에, 궁금한 것이 생길 때 마다 고민해보고, 동기들과 논의해보고 교수님께 질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질문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깨달음은 짙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기말고사 때 작성한 답안지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피드백을 요청드렸고, 감사하게도 모든 교수님들이 응해주셨습니다. 제 답안지의 문제점, 그리고 공부법과 로스쿨 생활 고민까지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 특별히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교수님들 보고 계신가요?:-), 아마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든 혼자서 힘들어하게 된다면 주변의 선배들, 교수님들에게 서슴없이 SOS를 요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慎獨 : 스스로를 제어하기

마지막으로는 부끄럽지만 제가 활용중인 방법을 살짝이나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확립한 공부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말씀해주는 것처럼 공부에는 정답도, 왕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한 글자라도 더 써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익히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합니다. 제가 활용중인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신독이라는 말처럼 대체적으로 저를 스스로 제어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습 시 ①타이머 어플 사용, ②타임랩스 사용이고, 그 외에는 ③스터디의 활용입니다.

우선, 타이머 어플에 관해서는, 학기 초에 변시 합격생 간담회에서,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 타이머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 인강시간x0.6) + (순수 자습시간x1)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매일 채우는 것이 그 선배께서 활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타이머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잘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플은 어떤 과목을 몇 시간 했는지도 정리해주어서 과목별로 균형있게 공부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순 시간을 채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집중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표한 시간을 채우면서 은근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랩스의 활용입니다. 타임랩스는 말 그대로 공부하는 모습을 동영상(타임랩스)으로 찍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타지에서 씩씩하게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며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촬영중인 동안에는 핸드폰을 만질 수 없으니, 다른 행동을 하고 싶다가도 금세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일 아침 매일 1시간 씩 사례형 스터디와, 평일에 객관식 스터디(각자 풀고 카톡으로 서로 인증하는 방식)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다보면 미루게 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스터디를 통해 강제력을 주면,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상생효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과 사례형은 변호사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점검하는데에도 참 좋은 도구입니다.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서, 매일같이 자신을 공부 판옵티콘에 가두게 되면, 혼자하는것 보다 지치지 않고 조금 더 재미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만큼 조금 더 와닿는 글,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싶어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생활은 분명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하며 오는 즐거움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볼 예비 12기 후배님들께서 참고하시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로1라이프를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 접수기간 :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2019 학년도 경쟁률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91	14	205	205				5.16	4.67	5.13	5.13	5.35	
건국대	37	3	40				40	143	11	154				154	3.86	3.67	3.85					3.85	3.2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188	15	203	213	12	225	428	3.42	3.00	3.38	3.80	3.00	3.75	3.57	3.88	
경희대	55	5	60				60	363	27	390				390	6.60	5.40	6.50					6.50	7.83
고려대				111	9	120	120				313	34	347	347				2.82	3.78	2.89	2.89	3.23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22	30	352	343	19	362	714	8.70	10.00	8.80	9.27	6.33	9.05	8.93	8.73	
부산대	65	5	70	46	4	50	120	212	12	224	160	14	174	398	3.26	2.40	3.20	3.48	3.50	3.48	3.32	3.03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90	19	209	293	9	302	511	10.56	9.50	10.45	15.42	9.00	15.10	12.78	7.33	
서울대	139	11	150				150	544	64	608				608	3.91	5.82	4.05					4.05	3.30
서울시립대	45	5	50				50	220	31	251				251	4.89	6.20	5.02					5.02	5.32
성균관대				111	9	120	120				367	28	395	395				3.31	3.11	3.29	3.29	3.0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62	12	174	155	16	171	345	7.04	6.00	6.96	6.74	8.00	6.84	6.90	8.86	
연세대				111	9	120	120				372	44	416	416				3.35	4.89	3.47	3.47	2.6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260	31	291	273	18	291	582	8.13	10.33	8.31	8.27	9.00	8.31	8.31	7.00	
원광대	30		30	25	5	30	60	309		309	254	35	289	598	10.30		10.30	10.16	7.00	9.63	9.97	8.87	
이화여대				92	8	100	100				371	28	399	399				4.03	3.50	3.99	3.99	4.15	
인하대	21	4	25	25		25	50	116	17	133	156		156	289	5.52	4.25	5.32	6.24		6.24	5.78	6.64	
전남대	51	9	60	60		60	120	189	43	232	243		243	475	3.71	4.78	3.87	4.05		4.05	3.96	4.30	
전북대	37		37	37	6	43	80	237		237	250	33	283	520	6.41		6.41	6.76	5.50	6.58	6.50	6.49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67	4	71	83	3	86	157	3.72	2.00	3.55	4.37	3.00	4.30	3.93	3.63	
중앙대	46	4	50				50	428	20	448				448	9.30	5.00	8.96					8.96	5.8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159		159	178	25	203	362	3.18		3.18	4.14	3.57	4.06	3.62	3.26	
충북대	40		40	25	5	30	70	198		198	114	19	133	331	4.95		4.95	4.56	3.80	4.43	4.73	5.11	
한국외대	46	4	50				50	177	15	192				192	3.85	3.75	3.84					3.84	4.92
한양대				92	8	100	100				301	29	330	330				3.27	3.63	3.30	3.30	3.47	
합 계	845	67	912	1002	86	1088	2000	4484	351	4835	4630	380	5010	9845	5.31	5.24	5.30	4.62	4.42	4.60	4.92	4.71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이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대회에서는 부산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대상을 안았다.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현장

지난 8월 22일(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하였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최소 4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생(또는 대학원생)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전국 12개 법전문 26개팀(162명)이 예선에 도전해 그 중 7개 법전문 8개팀(54명)이 본선에 올랐다.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프로세스

구분	예선	본선										
심사 방식	서면심사 100%	서면심사 30%, 경연심사 70%										
진행 규칙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면 자료, 노트북 등 활용 가능 배정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시 감점										
평가 지표	<table border="1"> <tr> <th>평가 지표</th> <th>점수</th> </tr> <tr> <td>이해력</td> <td>30</td> </tr> <tr> <td>논리력</td> <td>30</td> </tr> <tr> <td>해결력</td> <td>30</td> </tr> <tr> <td>문장력</td> <td>10</td> </tr> </table>		평가 지표	점수	이해력	30	논리력	30	해결력	30	문장력	10
평가 지표	점수											
이해력	30											
논리력	30											
해결력	30											
문장력	10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대회의 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변호사, 법전문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았으며, 치열한 경연 끝에 부산대학교 법전문 '정행정심'팀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개인에게 주어지는 'MVP' 또한 정행정심팀의 하현열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서울대와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외대 참가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내역

대상	정행정심(부산대)
최우수상	공감(서울대), 행복회LAW(성균관대), 虎민관(고려대)
우수상	법의항기(서울대), 외권신장(한국외대)



본선에 오른 8팀의 팀장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회사 중인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VP를 수상한 하현열 학생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Mini interview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 팀



대상을 수상한 '정행정심' 팀

수상 소감을 이야기 해주세요!

팀장 김민수 대회 시작 전 팀원들에게 대상을 안겨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제가 아닌 팀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준 것 같습니다. 대회 내내, 팀원 모두는 처음 기대했던 역할 그 이상을 해내었고, 혼자라면 못했을 방대한 작업들은 팀원들과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 모두에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받은 상의 무게에 맞게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돕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VP 하현열 솔직히 우승은 생각도 못했고, 농담만 했을뿐 MVP 수상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는데 뛰어난 팀원들 덕분에 큰상을 두개나 받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진부하지만 저로 하여금 법조인의 꿈을 꾸게했던 그리고 지금도 읽을때마다 저를 가슴뛰게 하는 법조문, 변호사법 제1조를 마음속에 새기며 공익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진 이번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정행정심 팀원들 모두가 모여서 모의토론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뉘어서 하루에 수 시간씩 치열한 모의토론을 하며 논리를 수정, 보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대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을 쌓게 되어서 더욱더 뜻깊은 대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정 권리구제절차와 법집행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팀워크 정신을 기르는 과정 역시 즐거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함양한 팀워크 정신과 변론능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로펌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유민 대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행정법 판례들을 접하고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팀원들로부터 법적 지식과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 더욱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구제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신우용 행정소송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원 모두가 맡은바 역할에 충실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먼저 오늘이 있도록 최선을 다한 팀장님, 팀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상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의 노력

이 빛을 발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모였던 날 해매던 순간부터 본선을 준비하며 고군분투했던 모든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팀에 합류하며 사람을 남기고 싶었고, 토론을 준비하며 사람을 향하는 법을 고민했으며, 대회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며 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경험들을 토대로 사람을 향하는 법조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진원 지금껏 추상적으로 배웠던 '국민의 권익', '공·사익의 형량' 등의 개념들을 실제 기록을 통해 고민하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고민들이 미래의 변호사로서의 자질, 일을 임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준 우리 '정행정심' 팀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팀원을 구성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김민수 저는 로스쿨 입학 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이 대회는 제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는 저보다 더 깊이 있게 행정법을 공부한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교내에 행정고시 경험이 있는 신우용, 김유민, 하현열 학우에게 대회참가를 권유했습니다. 특히 하현열 학우는 삼고초려를 통해서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고초려로 모셔온 이 친구는 훗날 대회 MVP가 됩니다(웃음)!

이후 2년 전 이 대회를 참가했던 한경석 형을 통해 토론대회 특성상 전달력이 좋은 팀원, 임기응변에 능한 팀원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얻고, 학부 시절 토론대회 수상자인 권진원 학우를 비롯하여 인용, 기각 팀의 메인 스피커로 김지은, 김윤정 학우를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로펌 인턴기간 탁월한 리서치 능력을 보여주었던 최원진 학우를 마지막으로 영입하여 8명의 팀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팀명 '정행정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최원진 저희의 팀명인 정행정심(正行正審)은 행정심판의 목적인 '국민의 권익 보호'에 착안한 것입니다. 정행정심은 정행(正行)과 정심(正審)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정행은 '정당한 행정행위'의 준말입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행위'로서, 행정청의 여러 결정들이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해야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정심은 '정당한 행정심판'의 준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경우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국민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의미에서 정심을 팀명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4회 경연대회의 본선 문제를 본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나요?

신우용 대회는 이미 인용과 기각으로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결론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용측과 기각측 각각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일반적인 법리나 법령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우리의 법리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판례나 재결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였고, 다행히 목적했던 판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통해 우리 주장의 근거를 든든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김지은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처음 사건을 받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팀원 모두가 각자의 입장만이 아닌 상대의 입장 또한 고려하며 고민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장 및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특히 '토론 태도'와 '상대를 설득하는 내용'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 인용팀, 기각팀을 나눠 실천처럼 연습을 해보는 몇 번의 과정을 통해 상대측의 주장 또한 매우 탄탄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역지사지의 태도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용측을 준비했기에 사람

을 향하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각측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의 사회적 비용도 귀기울이며 이해하려 노력하였기에 좀 더 깊은 내용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팀원 모두가 역지사지의 태도로 잘 준비했고, 임했고, 마무리하였기에 좋은 결과도 따라온 것 같습니다(웃음).

김윤정 행정심판제도는 일반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이기에 자칫하면 답변의 내용이 국민의 권익보장에만 치우쳐서 답변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사례와 전합 판례 등을 근거로 들며 이러한 공익 달성의 필요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도출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이상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변론, 수치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에 근거한 변론을 하자는 전략이 좋은 결과를 거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하현열 상대방이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할지 예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팀원들과 몇 차례 모여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추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고, 운 좋게도 실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한 번 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신우용 팀원이 센스있게 잘 답변해서(?) 나를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팀원들 간 행정법 공부 구력이 다 달라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함께 공부하



정행정심판팀 팀장 김민수 학생이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며 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김민수 대회를 준비할 때는 평소에 친하거나 학습방식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보다 팀의 목표와 필요에 맞게 학교 내 능력 있는 팀원들을 섭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팀원 구성에서도 보셨듯, 저희 팀 구성원은 평소의 친소관계보다는 모두 팀의 목표에 따라 영입되었습니다.

행정고시 경험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서면팀 4인은 예선과 본선 제출 서면을 담당했으며, 평소 발표나 토론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로 구성된 토론팀은 토론용 반박표 작성과 함께 토론용 발언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팀원들이 이미 각자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제 몫을 해낼 수 있었고, 또한 서로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팀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팀원 구성의 효과는 본선 토론을 준비하며 더욱 발휘되기도 했는데, 평소 관심 분야도 다르고 보유한 정보나 경험이 상이 했기에, 다른 팀들이 찾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색다른 정보들을 많이 준비해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김유민 심판개요서를 작성하고 토론을 준비하며,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웠던 행정 심판 제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시된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와 재결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법을



(왼쪽부터) MVP를 수상한 하현열 학생과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해석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 제도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신속·간이하고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진원 저희가 모의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저희 팀의 강점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팀원 수는 최대치에 맞게 꼭꼭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팀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인용, 기각을 나눠서 준비하는게 헛갈리지 않고 더 깊게 그 스탠스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출전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도 서면을 잘 쓰는 친구, 토론을 잘하는 친구, 자료검색에 능한 친구 등 다양한 능력자들이 모여 준비해서 더 탄탄한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느라 다들 바쁘고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겁이 나겠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세요! 그 도전이 끝나갈 때엔 한층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결과가 어떻든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경험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무사로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외국인들의 법적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유급성 학생은 서두르지 않는다. 이제 막 로스쿨에서 1년을 보낸 그에게는 조금함도, 오만한 여유로움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무던하지만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을 뿐.

심리학 전공을 살리지 않고 '노무사'의 길을 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학부 시절 윤리학 수업을 교양과목으로 수강했었는데, 인간은 살면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크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밥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면서도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될 노동은 나의 활동 중에서도 사회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딘가에 예속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선택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무사'라는 직업은 전문직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클 것 같아 도전하게 됐다.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부터 로스쿨 입학 전까지의 삶을 소개해 달라.

노무사 합격 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사과 농장과 바나나 농장에서 6개월간 원주민(Aborigine) 또는 한국인들과 팀을 이뤄서 농장 일을 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심경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빈약한 영어실력이 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과 대화하는 두려움은 많이 없어졌다.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온 직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무법인

에 입사할 수 있었다. 노무법인에서는 원어민 회화 강사, 외국인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들의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맡아서 진행하고 외국계회사가 우리나라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노무사 1~2년차 때부터 '노무사로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모두 알고 있는 '소송대리권'문제도 그러했고, 무엇보다 역량의 부족함도 느껴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대리해서 해고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형법적 지식이 있었다면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노동사건은 대부분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지만,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 그런데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가기 전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셨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법을 더 배워서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사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로스쿨에 진학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겠다. 두려움은 없었나?

물론 두려웠다.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
미
정
학
생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로스쿨 3년간의 예상되는 학비와 생활비를 열심히 모았다. 입학하더라도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비를 모았다. 3년치 학비를 다 모으니, 로스쿨 진학 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웃음).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로스쿨에 합격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 거였다. 그나마 결혼을 하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도전을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노무사로서 짧지 않은 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친숙한 법률 용어가 많아 법학 공부가 크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노무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노동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노동법과 노동 관련 법률용어는 친숙하다. 또, 비록 노동법 분야 판결문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지 아니하다'처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법에 친숙한 것도 맞다. 하지만 노동법 이외에도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등 법학의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각각의 법마다 지배하는 근본이념이나 논리구조, 개념 등이 각양각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웃음).

로스쿨에서 새롭게 출발한 2019년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은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좀 더 나이가 드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기회와 정신적, 심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것 같다. 그래서인

지 새롭게 법학을 배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무엇보다 노무사를 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업무만 하다 보니 스스로 소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로스쿨에서는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동기들을 만난 것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학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생활면에서도 뛰어난 동기들을 만나 많이 배웠고, 자극도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재학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으로 '운동'을 꼽는다. 즐겨하는 운동이 있다면?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입학 초기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 고갈이 몸으로 느껴져서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웃음). 지금의 체력 상태를 유지라도 하지는 마음으로 크로스핏 센터에 등록했고,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하고 있다. 크로스핏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라 시간이 부족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크다. 지금은 로스쿨 동기 6명과 함께 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민법'이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흥미롭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하다. 또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더라도 민법의 영역은 꾸준히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동기부여가 된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노무사로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법조계로 진출할 계획인가?

노무사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도 노동 분야의 일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할 생각이다. 과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노동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외국인분들의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또한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분야도 노동형법, 노동형사사건 등 분야가 점차 확장되

고 있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커질 것이라고 본다. 노무 영역과 더불어 변호사로서 특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한 두 가지 정도 더 개발해보고 싶다.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기본적으로 누구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병원처럼 문턱이 낮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선뜻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어렵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변호사가 어렵게 느껴지고 친숙하지 않은데, 그들의 입장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다음으로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

Lawschool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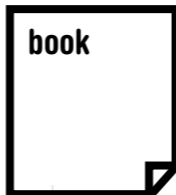
**직장인도 할 수 있다!
로스쿨 입학 꿀팁**

직장인이라면, 게다가 야근이 많다면 다른 수험생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 확실히 단점일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에 있어서는 직장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특히 고된 직장생활을 견뎌내고(?) 쓰는 자기소개서는 내용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일을 하면서 활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므로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내용도 풍부해진다.

면접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마주하고, 다양한 요구를 듣고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만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도 없다. 직장인들은 이미 예측하지 못한 질문에 답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있는 태도로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면접을 볼 때에는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머릿속으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생각하고 미리 그에 대한 교수님들의 예상되는 반박에 어떻게 재반박할 것인지 생각해 두면 좋다. 면접의 경우 답변하는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포맷에 맞춰서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2019년도 제2차(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8월에 시행된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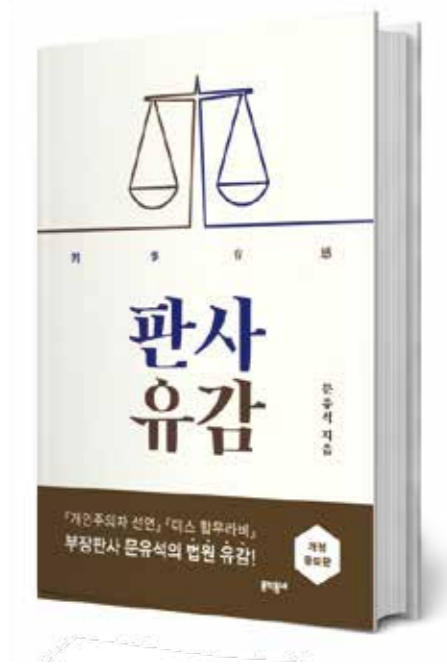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2019년도 제2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①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②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 10월에 시행된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은 11월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둘러싼 얼굴들 <판사유감>

이 책은 문유석 판사가 쓴 첫 책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판사유감>은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이름을 얻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문유석 판사는 그간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와 법조 문화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균형있는 시선을 담은 글을 전해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2014년 출간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법원 유감'이라는 제목을 단 3부의 내용을 추가했다.

저 자	문유석
출 판 사	문학동네
발 행 일	2019.10.14.
가 격	15,000원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공부 방법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에 입학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3년 공부 후 변호사가 될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라고 한다)에 탈락하고 있다. 실력은 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부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는 듯하다. 필자가 강원대학교 로스쿨 민사법 실무담당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간에 느낀 바를 정리해 보았다. “로스쿨 재학생 공부방법론”, 제목은 거창하게 붙여 보았으나 로스쿨 학생뿐 아니라 이 땅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물론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글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공부방법론을 필자가 즐겨 읽는 위대한 고전 논어(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보았다.

1.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學而 제1장)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중학교 1학년 때 한문 수업을 들으면 처음 배우는 문장이다. 논어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공자 학당의 학생들이 마치 교가처럼 매일 불렀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 또한 1학년 필수과목인 법률정보조사 과목을 담당했을 때 학생대표로 하여금 매일 수업 전에 칠판 윗부분에 위 구절을 써두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가? 부끄럽지만 필자도 학생 시절에 그러하지 못하였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 시절의 법과대학 4년,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3년만에 마쳐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3년 동안 공부를 피할 수 없다면 공부를 즐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법학 공부가 재미있어서 새로운 법조문을 배우고 그 법조문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를 배우고, 또 그것을 반복하여 익히며, 배우고 익히는 것이 습관화되어 즐겁다면 그 학생은 변호사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2. 변호사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多聞闕疑 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則寡悔 (爲政 제18장)

다문결의 신언기여즉과우 다견결태 신행기여즉과회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을 제쳐놓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많이 보고서 위태로운 것을 제쳐놓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위 문장을 쉽게 풀이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학생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게 된다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는 인색하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의뢰인은 당연히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변호사는 들으면서 머리속으로 쟁점을 정리하면 된다.

지금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의 가치를 높이는 화술”이라는 책이 있다. 변호사시험을 본 다음에 반드시 읽어보라.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말을 잘 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많이 들어라”이다.

서너 살짜리 어린이 둘이 놀이터에서 만나게 되었다. 한명은 한국인이고 한명은 미국인이다. 두 어린이는 처음에 서로의 생긴 모습을 보고 조금 서먹서먹해 하더니 이내 모래를 만지고 소꿉장난을 하며 같이 놀 수 있다. 물론 둘 다 말을 한다. 한명은 한국어로 한명은 영어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린이들은 듣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엄마로부터 막 말을 배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여야 자신의 모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그러한 말은 대화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화도 때로는 이와 다르지 않다. 자기의 말만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듣지 않는다. 그러고는 나중에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묻는다. 일종의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사람은 기분이나쁘며, 특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체력도 많이 소모되어 쉬 피곤해진다. 부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길 바란다.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질문하면 그 때 대답하라.

3.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자.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爲政 제17장)

자왈 유 회녀지지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由야! 너에게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위에서 由는 공자님의 제자로서, 성은 卬이고 字는 子路이다. 자로는 용(勇)을 좋아하였으니, 아마도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우겨서 안다고 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라고 공자님이 자로에게 말씀하신 듯하다.

어찌 자로뿐이겠는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면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기 때문일까? 그러나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생이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공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면 가끔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

한다.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을 해 보았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면 다른 학생에게 다시 질문하던지, 아니면 직접 가르쳐 주던지 할 것인데 질문을 받은 학생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학생이 대답할 때까지(틀린 답이건 아니면 모른다고 대답하건) 기다린다. 그러면 그 학생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순간 당황하기 시작한다.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를 대답을 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학생들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조차 인색하다. 알고 있음에도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는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틀리면 부끄러우니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변호사가 될 사람은 그래서 안된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대답하고, 모른다고 하면 교수가 가르쳐 준다. 학생은 모르니까 배우는 것이다.

필자가 대학 2학년 시절, 어느 날은 친구가 와서 어제 저녁에 민사소송법(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민소는 3학년 1학기 과정이었다) 책을 보면서 ‘개판력’에 대하여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필자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민소법을 미리 공부하는 그 친구가 마냥 부러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기판력(既判力)이었다. 그런 친구가 부장판사를 거쳐 지금은 지방에서 로펌 대표변호사를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은 모르니까 배우는 것이다.

물론 잘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해서도 안된다. 교수가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않던 학생도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다. 그것이 정확한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일단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책을 찾아보고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된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4. 주위의 동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述而 제21장)

자왈 삼인행 필유아사언 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잘못을 고쳐야 한다.”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이 좋은지, 친구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공부는 마음에 맞는 친구 4-6명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공부할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예컨대, 공부해야 할 판례가 많으면 스터디 멤버가 서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기, 판례 중 판시사항이 많을 경우 한명이 쟁점 하나씩 공부한 다음 설명하기 등)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또 공부한 내용을 토론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 고시 준비를 한 경험이 있어 법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스터디 활동은 도움이 된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자님은 무우불여기자(無友不如己者, 자기만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마라, 學而 제8장)고 하였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곱곰이 새기면 참 좋은 말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공부를 잘 하는 학우와 친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그 학우처럼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친구가 많이 찾아올 것이다.

5. 혼자 생각하기.

子曰 學而不思則罔¹⁾ 思而不學則殆 (爲政 제15장)

자왈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1) 없다. 어둡다. 그물, 계통

공부하는 학생은 위 뒷구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앞구절만 살피면 된다.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허황되고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나는 새긴다.

필자는 한국의 중등 교육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더욱이 학원에서 학생들은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요즘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여 좋은 직장, 나아가 좋은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하지만 학생은 배우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여야 하고 꿈을 키워야 한다. 어느 광고 카피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로스쿨 학생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법 공부하고 이어서 형법, 헌법, 행정법 등... 끝이 없는 방대한 공부량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공자님의 말씀처럼 배우고 나서는 또는 배우기 전에 학생은 생각을 하여야 한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배울 것인지, 배운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나는 그것을 배워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등.

배우는 시간이 1시간이면 30분은 생각을 해야 한다. 로스쿨생이 민법 책을 1시간 읽으면서 판례를 공부하였다면 30분 동안 왜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위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습득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수학을 1시간 배우면 30분 동안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수학 이후 다시 영어 학원을 가야하고 과학, 사회를 배워야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어에 나오는 “罔”이라는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1시간 공부 후 30분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한다. 그러나 2시간 공부를 하면 반드시 30분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30분 동안 캠퍼스를 산책하면서(그것이 또한 운동방법이기도 하다) 생각을 해야 한다.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지도교수님(그 분은 전직 헌법재판관이시다)이 말씀하셨다. “판사는 야근을 하면 안 돼. 그 시간에 아들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판결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들에게 산책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 30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생각을 해야만 그 ‘배운 공부’가 자기 것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6. 계획을 세웠으면 쟁쟁하게 행동으로 옮기자.

子曰 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 (里仁 제24장)

자왈 군자 욱눌어언이민어행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실행은 민첩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결심을 많이 한다. ‘내일부터 민법을 2주일간 공부하고, 그 다음은 형법을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결심을 공고히 하려고 친한 친구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스스로 다짐을 한다. 그 계획이 잘 지켜지는가? 흡연자가 ‘내일부터 담배 끊어야지’라고 결심하고 주위에 금연 결심을 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심삼일이라 했던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말로 주위에 선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된다.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많이 들으라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을 잘 하는 사람 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말보다는 행동, 결심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공부방법론을 이상 6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보았으나 공자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했는지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방법이니만큼 학생들의 공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 외 판례 공부방법, 변시 준비방법 등 추가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로스쿨 재학생 모두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라. 이 세상에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AI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애라 교수

2019. 8. 29.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가 열렸다. 경진대회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의 특별행사로 진행되었다. AI 기반 계약서 및 법률·판례분석 프로그램(인텔리콘 메타연구소 제공)을 이용하는 AI+인간 팀 3개 조와 순수한 인간 변호사 팀 9개 조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각기 근로계약서의 관련법 위반 위험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의 정확성을 심사한 결과, 1위부터 3위를 모두 AI+인간 팀이 차지했다. 필자는 컨퍼런스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후 시상식을 지켜보았다.

AI+인간 팀이 승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노동법과 근로계약 분야는 법적 쟁점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사례도 풍부하여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알고리즘이 인간을 압도한다. 일정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는 사람보다 AI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시장의 규모가 크고 데이터가 풍부한 영미 법조계에서는 AI가 실사(due diligence), 전자정보의 증거개시(e-Discovery), 법령·판례검색 및 분석, 판사의 판결 성향 분석 및 결과 예측, 상대방의 주장 예측, 법률 관련 서류작성 등 법률서비스 전반에서 이미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2019. 8. 발간된 보고서에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 중 하나인 '실력을 갖출 의무(duty of competence)'에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Moore v. Publicis Group 사건에서[287 F.R.D. 182 (S.D.N.Y. 2012)] 미합중국 연방

지방법원(뉴욕남부)은 당사자가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선별하는 데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람에 의한 수작업 선별보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별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즉 영미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는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비록 국내 리걸테크 업체들이 야심차게 법률 AI를 개발 중이지만, 그 상용화에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금지한다. 리걸테크 회사 자체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니므로, 리걸테크 회사가 일반인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지급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리걸테크 회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하는 업무가 '법률사무'가 아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법률사무'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리걸테크 회사가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AI 분석보고서 작성이 법률사무 처리인지, 또한 AI 분석보고서 작성 후 변호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법률사무 처리에 따른 이익분배인지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리걸테크 회사의 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 리걸테크 회사가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에게 AI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

급받는 것까지는 허용하자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또 다른 걸림돌은 AI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법률데이터의 부족이다. 법원의 판결문은 극히 일부만이 종합법률서비스에 텍스트로 공개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문,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건당 1,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민간 영역에서 법률데이터를 취득하려 해도, 데이터 3법(속칭 '개망신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데이터의 거래가 매우 어렵고, 정보유통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법률 AI의 발전을 막는 이러한 규제가 시정되어야만 영미에서와 같은 다양한 법률 AI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법률 AI가 상용화되면 변호사 윤리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앞서 본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의무 외에도, 의뢰인에게 AI 활용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 AI 활용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 AI 서비스 업체가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독할 의무, AI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최종 판단을 내릴 의무 등이 AI와 관련된 변호사의 의무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변호사 윤리규약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률 AI가 법률서비스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수록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AI가 활용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 AI는 변호사의 일자리를 줄이는 이상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호사 사무실의 심리적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법률 AI 덕분에 법률지식과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지게 되면, 종전에 변호사의 법적 검토 없이 적당히 처리되었던 수많은 업무들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신규로 편입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 변호사가 이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법률 AI 개발에 뛰어 들고 있다. 또한 AI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선례가 없거나 정형화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영역은 변함없이 인간 변호사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직 인간만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의뢰인과 교감하며 아픔을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 인간 변호사의 존재의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굴 잘 빨개져서 불편한 사람... 피부 자극부터 피하세요

신입사원 이모(28)씨는 최근 안면홍조가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심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거나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 참석할 때,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 불과 이마 부위가 빨갱게 달아오른다. 심할 때는 귀 뒤쪽까지 붉어진다. 일교차가 큰 요즘에는 안면홍조가 더 심하다. 이씨 처럼 얼굴이 잘 빨개지는 안면홍조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다 보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올라 피부가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도 불편하다. 안면홍조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감정적인 원인, 다른 하나는 피부 문제이다. 원인에 따라 개선법도 다르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안면홍조, 사회공포증 같은 감정 문제가 원인일 수도

안면홍조는 급격한 감정 변화, 감정적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나타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피부 아래의 혈관 벽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혈류량이 증가한다. 특히 얼굴 피부에는 혈관이 많은데다 피부 가까이에 몰려 있어 홍조가 잘 생긴다. 귀나 목, 가슴에도 생긴다. 심한 안면홍조는 자신감 상실,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부를 수 있다. 감정에 의한 안면홍조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안면홍조는 불안 장애 중 사회공포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사회공포증의 유병률로 미루어 100명 중 1~2명꼴로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는 혈관 확장을 막는 베타차단제,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등을 이용한다. 안면홍조에 대한 두려움이 안면홍조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인공포증 등 불안 증상을 경감시키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좋다.

◆피부 문제라면 염증이 원인

안면홍조는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이기도 하다. 피부 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데, 감정적인 자극이 없어도 정상인에 비해 얼굴이 쉽게 빨갱게 되고 오랫동안 빨간 상태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안면홍조 원인에 대해, 최근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단백질 카텔리시딘(Cathelicidin)을 주목하고 있다. 카텔리시딘이 과도하게 발현된 환자들이 혈관 기능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안면홍조가 나타난다고 추정하는 것. 카텔리시딘이 과도하게 발현되면 면역 반응이 증가해 염증이 늘어나 안면홍조가 악화된다.

안면홍조는 햇빛에 자주 노출돼 진피의 교원섬유 등이

변성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날 수 있고, 가족력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고혈압약, 호르몬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제 같은 약 때문에 안면홍조가 생기기도 한다.

◆안면홍조 방지했다 '딸기코' 될 수도

피부 문제인 안면홍조는 증가세에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0개 종합병원(강동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피부과에 내원한 안면홍조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2014년 2512명에서 2016년 2970명으로 2년 새 약 20% 증가했다. 안면홍조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대한피부과학회 조사결과, 안면홍조 발병 후 1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68%가 병원 방문 전에는 본인의 증상과 질병 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안면홍조를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염증이 심해 피부가 변형되는 주사로 발전한다. 주사는 ▲혈관이 확장돼 피부가 지속적으로 붉은 상태가 되는 '혈관 확장성 주사' ▲ 혈관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는 '구진 농포성 주사' ▲코 주변의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코의 크기가 커지는 '비류성 주사(딸기코증)' ▲눈 주변 혈관이 확장돼 붉게 변하고, 안구건조·눈꺼풀 부종·각막 손상 등이 나타나는 '안구 주사'가 있다. 안면홍조가 주사까지 진행이 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안면홍조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안면홍조, 먹는 약, 연고로 치료

안면홍조의 기본적인 치료는 미노사이클린·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저용량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이 있어 2~4개월 단기간 쓸 것을 권장한다. 최근에는 바르면 혈관을 12시간 수축해 홍조 증상을 완화하는 연고, 염증의 원인인 모낭충을 개선하는 연고가 나와 치료제도 쓰이고 있다. 약물 반응이 적거나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면 IPL이나 혈관레이저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도 한다. 보통 치료는 6개월 이내에 끝난다. 안면홍조는 30~50%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안면홍조를 악화하는 습관을 알고 고쳐야 한다.

◆재발 잦은 안면홍조 생활관리 필수

피부 문제로 인한 안면홍조 관리의 기본은 '피부 자극 최소화하기'이다. 피부에 좋다는 기능성 화장품도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자외선 피하기** =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은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 피부가 매우 예민한 상태이므로 햇빛 노출은 피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피부가 예민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양산이나 모자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급격한 기온 변화 주의** = 너무 뜨겁거나 추운 환경에 있으면 안 된다.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물을 사용한 장시간의 목욕 등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한다. 과격한 운동, 감정 변화 등 평소 얼굴을 붉게 만드는 활동을 자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피부 마사지 등 자극 피하기** = 피부 마사지나 팩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피부 관리는 하지 않고, 주름개선·미백 같은 기능성 화장품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무리한 각질제거나 필링도 금물이다.

▶**세안도 약하게** = 세안 시 약산성의 순한 클렌저를 사용해야 하며 약간 차가운 물로 가볍게 세안해야 한다.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한 이중세안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아기 보습제 쓰기** = 피부 보호막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간 보습제 보다 아기용이나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쓰는 순한 제품을 골라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 해 안면홍조가 개선된다.

▶**뜨거운 음식 좋지 않아** = 뜨거운 음식은 잠깐 여유를 두고 식혀 먹고,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알코올은 혈관 확장의 주범이므로, 절주해야 한다.

안면홍조와 생활관리

- 1 먹는 약(항생제), 바르는 연고·레이저 치료가 치료의 기본
- 2 아기용·아토피피부염 환자용 순한 보습제 꼭 사용
- 3 자외선 차단제 사용(피부가 예민할 때는 권장 안함)
- 4 온도 변화, 감정 변화로 얼굴 붉어지지 않게 관리
- 5 이중 세안 등 피부 자극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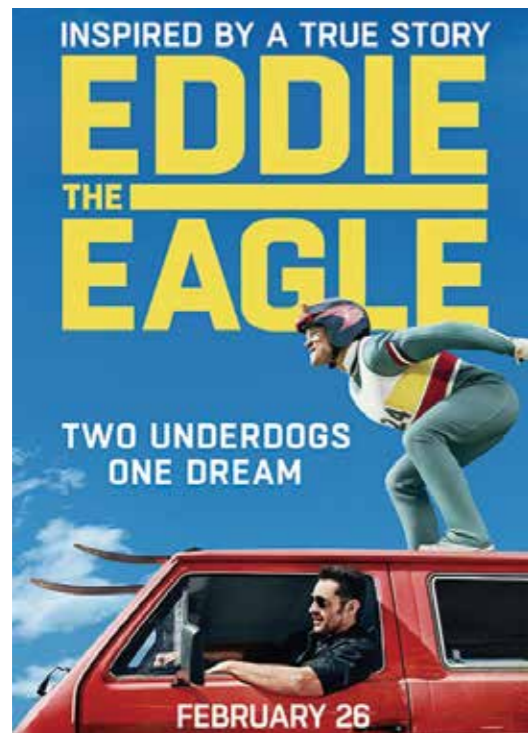


박상홍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실패와 좌절을 딛고서 - 영화 <독수리 에디>

이 달의 영화



독수리 에디(Eddie the Eagle)
드라마 | 2016.04.07. 개봉 | 106분 | 영국 | 12세 관람가

1. 꿈을 향한 출발 - 스키점프 선수 에디

어릴 적부터 운동에 소질이 없던 에디의 꿈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디의 아버지는 뛰어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1년간 병원신세를 진 그에게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라고 권유한다. 운동신경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에디가 현실적인 직업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장일을 하는 곳으로 데려가지만, 에디는 그곳에서도 사라지기 일쑤였다.

에디는 1988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자 했지만, 학벌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스키선수로 선발되지 못한다.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아버지는 다시 미장사 자격증을 따라고 조언했으며, 어머니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운동을 포기하려던 찰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모습이 에디의 눈에 들어왔다. 독일 가르미슈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그는 운명처럼 스키점프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다.

스키점프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에디는 영국올림픽위원회에 찾아가 영국 내 스키점프 기록을 조사하는데, 영국에 스키점프 선수는 아예 없으며 당시까지 영국의 기록은 22.0미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에게 올림픽 출전의 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에디는 무작정 독일 훈련장으로 출발하



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상과 투혼 그리고 좌절이었다.

2. 훈련의 시간

별도의 숙소가 없는 에디는 훈련장 선술집 창고에 몰래 숨어들고, 다행히 선술집 사장이 그를 고용해주는 조건으로 숙식을 해결하게 된다. 에디는 무작정 15미터 점프부터 혼자 시작한다. 방송에서 본 스키선수들의 모습을 모방한 것인데, 운이 좋게도 성공한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점차 점프대 높이를 높여가며 단독 훈련의 강도를 더해가지만, 40미터 점프대에서 도약한 후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에디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선술집 사장 페트라라는 지나가는 노르웨이 코치를 그에게 소개시켜 주고, 에디는 무작정 그를 따라가 지도를 부탁한다. 하지만 노르웨이 코치는 훈련을 시작하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에디를 밀어내며, 노르웨이 선수들은 6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니 꿈을 깨어나라고 일러준다.

에디는 노르웨이 코치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단독 훈련을 시작한다. 다시 40미터 점프다. 에디는 성공을 확신했지만, 매번 균형을 잃고 넘어

진다. 수십 번 넘어져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에게 슬로프 청소부가 찾아와 눈밭을 그만 어지럽히라고 충고한다. 페트라에 의하면 슬로프 청소부는 '브론슨 피어리'인데, 그는 과거에 천재적인 미국 스키점프 선수이자 신기록 제조기로 불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방탕한 선수생활은 전설적인 웨렌 샤프 코치의 눈 밖에 나게 되었고, 그의 선수생활도 종료되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에디는 곧바로 슬로프 청소부 브론슨 피어리를 찾아가 자신을 코치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다시 설원의 훈련장으로 돌아온 에디. 에디는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에디는 페트라에 가게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피어리에게 지도를 부탁한다. 다시 되돌아온 거절. 때마침 같은 공간에 있던 노르웨이 선수가 피어리가 미국 대표선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을 비웃기 시작한다. 한 노르웨이 선수가 피어리의 등을 수차례 치며 조롱하는데 다혈질의 피어리는 선수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돌아온 건 노르웨이 코치의 주먹이었다. 싸움이 끝난 후 피어리는 에디를 데리고 실내 훈련장으로 가 점프의 역설을 설명해준다. 최고의 높이에서 도약하는 순간 하강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점프를 위해 몸을 숙이고 새의 날개처럼 손을 펴야 한다고 알려준다. 피어리는 90미터 점프대에서 단숨에 도약하여 순식간에 착지하고, 그의 비행장면에 에디는 경탄한다.

에디는 다음날 다시 40미터 훈련을 시작하고, 착지에 성공한다. 그는 피어리를 찾아가 켈거리올림픽 출전을 도와달라고 다시 조르기 시작하는데, 피어리는 지금 상태로 70미터에 뛰어들었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한다. 피어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에디는 70미터 높이에서 도약하지만, 공중부양에서부터 균형을 잃고 처참하게 부상을 당한다.

병원신세를 지게 된 에디를 찾아 온 피어리의 눈에 책 한권이 들어온다. 그의 코치 워렌 샤프가 지은 '스키점프 교본'이었는데, 책에는 피어리에 대한 소개가 적혀있었다. "피어리는 내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났지만 동시에 가장 나를 실망시켰다. 위대한 챔피언의 실력을 갖췄지만 운동에 전념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가 올림픽 정신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대목이 적혀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에디에게 피어리는 착지하는 법만 가르쳐

줄 것이며 올림픽선수 출전권을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포기하지 않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단, 그 기간은 올림픽 출전권 획득 전까지다.

에디는 우선 가르미슈 시니어 대회에 출전하기로 한다. 실내연습장에서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에디의 허리를 붙들며 공중에서 자세를 지도하는 피어리. 도약의 순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려보라고 지도한다. 에디는 훈련 끝에 가르미슈 대회에서 34미터 착지에 성공하지만, 영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끝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알려준다. 단순히 착지 성공만으로는 안 되고 최소 61미터는 기록되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특정인의 올림픽출전권을 박탈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변경된 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것은 법상 위반이라는 점을 로스쿨 학생들은 쉽게 알아챌 것이다.)

거부당한 그가 선택한 것은 재도전이었다. '너의 현재를



보라'는 코치와 그의 아버지, 그의 출전을 무작정 막는 대회 의 위원들 앞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쥐어준 저축금을 가지고 아버지의 트럭을 끌고 다시 스키장으로 간다. 코치의 가르침을 받아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끝에 에디는 연습경기에서 61미터를 뛰어넘고 결국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그러나 정작 피어리는 올림픽 출전을 만류한다. 자신의 실패한 과거를 떠올리며, 정식 훈련을 거친 후 4년 뒤에 다시 도전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이 오랜 꿈이었던 그에게 피어리의 말이 들려올 리가 없었다.

3. 올림픽 출전과 성취

에디의 출전은 영국선수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70미터 도약에서 무사히 착지한 그는 독수리 날갯짓을 보이며 관중들 앞에서 세레머니를 보인다. 겨우 1년간의 연습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그는 메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그는 영국 신기록을 세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90미터 점프에 오른다고 선언했다. 급히 캐나다로 날아온 피어리는 70미터 대회와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면 된다고 격려했지

만, 90미터의 도약대는 에디에게 너무 높고 두려웠다. 에디는 제한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야야 하강을 시작하고, 가까스로 도약에 성공한다. 그의 성공을 많은 이들이 축하한다.

4.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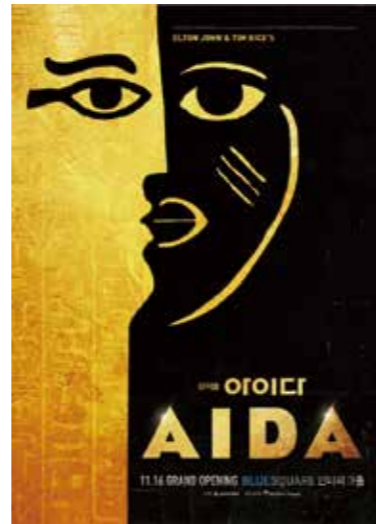
천재코치 피어리와 함량 미달 선수 에디의 만남. 에디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술 대신 우유를 마시고 온종일 스키점프만 생각했다. 피어리는 어땠는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자신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술을 가까이 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영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에디는 코치의 죽은 과거를 깨웠고, 코치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에디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능력치를 높여주었다. 둘은 함께 챔피언이 된 것이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에디는 묵묵히 개인의 신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었다. 비록 에디의 목에 메달은 걸리지 않았지만 전 세계 관중들에게는 감동의 금메달을 수여했다. 에디는 꿈꾸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모습에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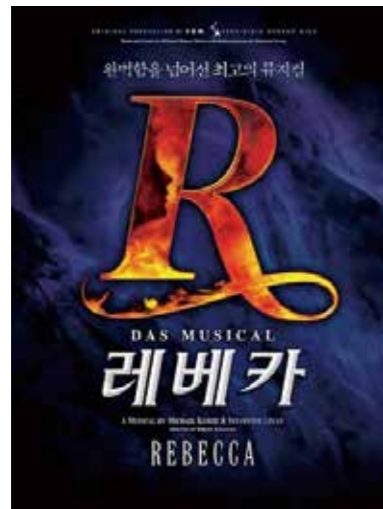
🎵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
뮤지컬 **아이다**



뮤지컬 <아이다>는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파라와와 딸인 암네리스 공주,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장군 라다메스의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적인 작사가 팀 라이스,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브로드웨이 최고 실력자들이 모여서 7년간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고대 이집트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환상적인 무대와, 아름다운 의상, 조명 장치 등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초연되었으며, 이번 공연이 14년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가 되는 마지막 공연이므로 한번쯤은 공연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 🕒 **공연기간** 2019.11.16 ~ 2020.02.23
- 📍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 **티켓가격** VIP석_140,000원, R석_120,000원
- 🌐 **홈페이지** www.iseensee.com



🎬 반전을 거듭하는 서스펜스
뮤지컬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는 영국 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으며,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됐다. 국내에서는 2013년 초연되어 네 시즌 동안 공연되었는데, 평균 객석 점유율이 92%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 레베카를 잃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가 여행 중 우연히 '나'라는 인물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막심 드 윈터 역에는 류정한, 엄기준, 덴버스 부인 역에는 옥주현, 신영숙, 나 역에는 박지연, 이지혜가 캐스팅되었다.

- 🕒 **공연기간** 2019.11.16 ~ 2020.03.15
- 📍 **공연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 **티켓가격** VIP석_140,000원, R석_120,000원
- 🌐 **홈페이지** http://www.musicalrebecca.co.kr

🎨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2019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분단 문학의 대표작인 최인훈의 소설 <광장>,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집회의 경험을 지닌 오늘날의 한국에서 광장은 역사성과 시의성을 모두 지니며 장소성을 초월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특히 광장은 모여 살기로 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곳이다. 결국 광장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변화하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 **전시기간** 2019.9.7. ~ 2020.2.9.
- 📍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4,8전시실
- 🎫 **티켓가격** 4,000원
- 🌐 **홈페이지** www.mmca.go.kr



🎭 고전발레의 명작
호두까기 인형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변함없이 무대에 오른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콤비 차이코프스키와 마리우스 피티파가 탄생시킨 고전 발레의 대표작으로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코프스키 3대 명작으로 불리고 있다. 18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크리스마스 대표작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국내에서도 1986년 초연 이래 33년째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로부터 끊임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 🕒 **공연기간** 2019.12.21 ~ 2019.12.31
- 📍 **공연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 🎫 **티켓가격** VIP석_100,000원, R석_80,000원
- 🌐 **홈페이지** www.universalballet.com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최종 검토회의 개최



지난 9월 한 달간 법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최종 검토회의가 진행되었다. 최종 검토회의는 사전에 출제된 문항을 검토하는 단계로 공법(9/23), 민소법(9/25), 민법(9/26), 형사법(9/27) 검토 회의가 차례대로 진행되었으며, 10월 초까지 영역별 최종 검토회의가 이어졌다. 또한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변호사를 검토위원으로 선정해, 출제된 문항을 검토하는 회의도 함께 개최하였다.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10월 18일(금)부터 나흘간 진행되었다.

지역 소재 법전문대학원 간담회 개최

9월 20일(금) 법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재 법전문대학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순석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권역 소재 법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하여, 지방인재 선발 의무화(이행점검)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방인재 선발 의무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지방권역 학교의 학사운영 및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해결하기 위해 11개 지방 소재 법전문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지방인재 입학생들의 법전문대학원 입학 및 학사관리 현황을 취합하였다. 간담회는 각 학교별로 취합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지역인재 선발전형 기준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을 요청('19.9.24)하였다.

제46차 이사회 개최

9월 27일(금)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실에서 제46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제46차 이사회는 김순석 이사장 외 임원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 임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연구 추진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서울대 대표단 방문행사 및 제49차 총회 개최



10월 19일(토) 법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외 법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행사와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제49차 총회가 개최됐다. 대표단 방문행사는 서울대학교 법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환영식, 서울대학교 법전문대학원 소개, 교내 시설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뒤이어 진행된 제49차 총회에서는 제3주기 법전문대학원 평가 개선과 한국리얼클릭협의회 지원방안 제안 검토를 비롯해 법전문대학원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겸 연구사업단장 임명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이승호 건국대학교 법전문대학원 원장을 신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겸 연구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연구사업단장은 2021~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총괄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이다. 이승호 연구사업단장은 형사법학의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를 맡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 담당자 회의 개최

지난 10월 31일(목) 법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 담당자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7월 14일(일) 시행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교(전국 9개지구 16개교)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차년도 시행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하는 제6회 KNU LAW REVIEW 전국 논문공모



| 주제 |
법학 자유주제

| 제출 |
lawreview@knu.ac.kr 으로
소속 및 연락처 기재 투고

| 형식 |
신명조, 한컴 오피스 글자크기 11pt,
줄 간격 180%, 20매 내외

| 마감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시상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1명) - 100만원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 (1명) - 100만원
가작 (4명) - 20만원

| 특전 |
KNU LAWREVIEW 제 9호 수록

문의 : lawreview@knu.ac.kr

주최 : KNU 경북대학교 대구지방변호사회
주관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Law Quiz



Q1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ㄷ.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ㄹ. 법령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없다.
- ㅁ. 헌법 제12조 제1항의 후단의 적법절차원리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적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 ③ ㄹ, ㅁ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ㅁ

Q2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공모함으로써 그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해자인 법인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자와 공모함으로써 그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하고 복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 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④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Q3 사실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 ㄴ.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권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 ㄷ.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자신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그의 사실혼배우자는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사실혼관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ㄷ
- ⑤ ㄴ, ㄹ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출처: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